

부끄럽지 않게

산촌서 나고 자란 아버지는
아들이 나랏 녹을 먹게 됐다며
옴푹 패인 주름살 위로
싱긋 한번 웃어 보이시곤
다시 눈물을 대러 나셨다

고향 떠나는 전날 밤
땡볕에 마당 수북한 깨를 터니라
깨보다 더 바짝 말라버린 손마디로
자신과 똑 닮은 얼굴을
쓰담으며 하신 말씀

부끄럽지 않게 살아라
부끄럽지 않게 살아라

오늘도 난

내 마음 속 비추어내
가장 먼저 물어야만 한다

어떤 길이 바른 걸까
어떤 길로 가야 할까

고향 떠난 그날 밤처럼
아버지와 날 똑 닮은
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담는다

부끄럽지 않게 살아라
부끄럽지 않게 살아라
문득 그리운 아버지가
창에 달빛을 비춰왔다